

## □서평□

## E. 질송, 『존재란 무엇인가』

— 정은혜 옮김, 서광사, 1992, 418쪽 —

1. 저자 질송(Etienne Gilson, 1884-1976)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광범위하게 전개된 중세철학 부흥 운동에 힘입어 수세기 동안 ‘암흑기’라는 흑평과 경멸의 대상이 되어 온 중세 철학(中世哲學)을 밝은 빛 속으로 끌어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만든 탁월한 철학사가이자 동시에 이론 철학자이기도 하다. 그의 이론적 철학 서적들도 철학사적인 기초를 토대로 전개된다. 철학사라는 토대가 그의 이론 체계의 틀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질송은 실증주의 일색으로 교육되고 있던 소르본느 대학에서 레뷔-브뤼엘의 지도 아래 학위 논문으로 데카르트 사상의 근거를 연구하게 되었는데, 그는 이 연구를 통해서 근대 사상이 낡은 중세 스콜라 철학과 결별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사상 세계를 열었다는 일반의 통념과는 달리, 오히려 그것이 중세의 풍부한 원천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발견하고, 본격적으로 중세 사상에 대해 연구하게 된다.

중세 사상 전반에 대한 오랜 탐구는 질송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하게 해주었다. 첫째, 당당히 그리스도교 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중세 철학이 실존한다는 사실이다. 둘째, 이 그리스도교 철학은 그리스도교 계시를 통해 알려진 창조(創造, creatio) 사실에 토대를 두고 신플라톤 전통의 참여(參與, participatio) 개념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발견한 유비(類比, analogia) 개념에 대한 심화 작업을 통해 도달하게 된 존재 형이상학(存在形而上學)이다. 셋째, 이 존재 형이상학은 유일하게 타당한 실재주의(實在主義, realism)이다.

질송의 이론적 작품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교 철학’의 타당성을 입증하려는 노력이다. 그의 논술은 1) ‘방법적 실재주의의 옹호’와 2) ‘존재자-본질-존재의 변증법의 심화’라는 두 개의 근본적인 동기에 입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계기는 『방법적 실재주의』(1935)와 『토미스트 실재론과 인

식 비판』(1939)에서 전개된다. 실재주의는 다음 두 가지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우리의 인식은, 실재가 우리 인식의 원인이기 때문에 실재를 참으로 취득한다. 그러나 본질 영역에 속하는 것들은 개념화될 수 있으나 존재는 개념화되지 않는다. 둘째, 우리의 지성이 감성 덕분에 실제 속에 담겨 있는 가지성을 포착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은 바록 직관은 아니지만 실재를 '실제 있는 그대로' 포착한다.

실재주의의 시금석은 인간의 본질이 이성적 동물이라는 정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성과 경험의 상호 협력을 통해 그것을 씨줄과 날줄로 삼아 인식과 학문이라는 천이 짜여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 인식의 궁극적 기초는 본질이 아니라 바로 존재자의 존재현실력(actus essendi)이다. 개념되는 존재자가 직관적으로 지각된 어떤 감각적인 것의 존재자이기 때문에 존재자 개념은 인식에 하나의 '직관적 지각'처럼 나타난다. 실재주의는 진정한 철학의 유일 타당한 방법이다.

질송 철학의 두 번째 계기 즉 존재 형이상학의 심화 작업은 특히 『존재와 본질』(1948)에서 체계화되고 『기독교 철학 입문』(1960)과 유작으로 출판된 『존재의 향수』(1983)에서 계속된다. 그는 본질주의 계열이 전개하는 '가능 존재'(posse esse)의 학문에 철저히 반대하고, '존재현실력으로서의 존재'(esse ut actus essendi)의 형이상학을 옹호한다.

2. 이 책 『존재란 무엇인가』는 질송이 64세의 원숙기에 집필한 주저라고 할 수 있는 *L'être et l'essence*(『존재와 본질』, 1948)를 기초로 삼고 그것을 저자 자신이 약간 변형시켜 이듬해에 직접 영어로 출판한 *Being and some philosophers*(『존재와 몇몇 철학자들』, 1949)에 대한 개정 증보판(1961)의 완역이다.

이 책은 철학사적인 틀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 자신이 "머리말"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철학 서적이다. 오직 진리만을 추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역사적 실험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중에 형이상학의 토대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존재란 무엇인가?'이다. 파르메니데스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모든 위대한 철학자들은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질송은 철학사 전체에 걸쳐서 이 질문에 대한 네 가지 대답을 추려낸다: 첫째는 플라톤에서 플로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 위-디오니시우스를 거쳐 마이스터

에카르트에 이르는 플라톤 계열의 대답으로서, 존재자를 '자기동일성'(identitas)으로 해석한다(1장) 둘째는 아리스토텔레스, 아베로에스, 시제 브라방 등의 입장으로서, 존재자를 '실체'(substantia)로 이해한다(2장) 셋째는 아비첸나, 스코투스, 수아레즈, 데카르트, 볼프, 칸트, 헤겔에 이르는 아비첸나 계열의 입장으로서 존재자를 '본질'(essentia)로 해석한다(3-4장). 키에르케고르가 헤겔을 거슬러 실존을 내세웠지만, 그의 실존은 아직도 본질의 일종이다. 넷째는 성 토마스의 입장으로서, 존재자의 존재를 '존재현실력'(actus essendi)으로 이해한다(5장).

다시 정리해 보자면, 존재가 무엇인지를 해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선 '본질주의'와 '실존주의'라는 두 가지 대립적인 입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 본질주의자들은 존재자를 주로 본질 혹은 보편자, 즉 개념화할 수 있고 정의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2) 반면, 실존주의자들은 존재자를 개념화할 수 없고 정의할 수 없는 '현존재'(Dasein)로, 즉 구체적인 개별적 실존으로 이해한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개별적이고 역사적인 실재를 무시하고 실재의 가지성을 그 보편적 요소 안에서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합리주의자들이지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구체적 실존의 현상학에 몰두하여 어떠한 형태의 보편적 가지성도 배격함으로써 비합리주의에 떨어진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의 입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가? 그렇지 않다. 이 대답은 가짜 대답이다.

그렇다면 3) 실체를 본질(forma)과 개별적 실존(materna)의 통합으로 개념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가 이 두 극단적 대답을 뛰어넘는 균형있는 종합으로 간주될 수 있을 법하다. 그는 무엇보다도 신을 순수 현실인 실체로 개념했다 그렇지만 질송이 밝히는 바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은 '존재' 현실이 아니라 '사고'의 현실, 즉 본질의 영역에 속하는 하나의 규정된 존재 방식의 현실이다. 그러나 4) 토마스 아퀴나스의 형이상학에서 정식화되어 나타나는 유대-그리스도교적 계시의 신은 무한하고 제약이 없는 존재현실력 즉 모든 존재자의 제일원인(창조주)이다. 이제 본질과 존재 사이의 실제적 구별을 통해서 성 토마스는 피조된 존재자를 하나의 본질(순수 논리적 가능성으로서, 그 가지성이 개념으로 표현된다)로 개념할 수 있었다.

이렇게 철학사의 흐름을 계열별로 철저히 검토하고, 제5장에서 성 토마스가 이룬 놀라운 종합과 균형 감각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질송은 마지막으로 존재의 인식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검토하며,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을 다시 한번 성 토마스의 실재주의적 해결책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6장)

실상 이 책의 목적은 '사유와 실재 사이의 관계'를 해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모든 앎은 사유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상 그토록 많은 철학자들이 ‘존재’를 잘못 이해하여 사고와 실재를 혼동함으로써 본질주의적 경향으로 빠져들었다. 따라서 원리 중의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떤 철학자라도 실재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최초의 것 즉 존재자(ens)를 그의 마음 속에서도 항상 처음에 놓아야 한다’는 실재주의의 원리이다

우리가 실재를 그 본성상 보편적인 명석 판명한 관념들로 환원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개별 사물의 현실인 존재현실력을 기각시키게 된다. 질송에 따르면, 이 현실력은 개념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존재는 본질이 아니라, 본질이 바로 그것 덕분에 실존하게 되는 현실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존재는 본질 안에서 본질을 통해서만 본질의 현실력으로서 포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존재는 실존 판단에 의해서 긍정된다. 질송에 따르면, 실존하는 실재를 탐구하는 토미즘은 본래적인 ‘실존주의’이다. 그것은, 오늘날 실존주의자라고 지칭되는 철학자들처럼 ‘실존’을 좁은 의미로 즉 인간에게만 국한된 어떤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본질을 배제하지도 않는다. 토미즘은 주로 실존하는 그대로의 실재를 탐구하고, 존재를 수용한 현실과 그렇지 않은 무한 현실 사이의 관계를 탐구한다.

이 책에는 비판적 논평들에 응답하는 부록이 실려 있다. 이 부록에서는 ‘존재자’ ‘존재’ ‘본질’과 같은 용어들을 그 어원에 입각해서 상세히 논하고 있다. 그 밖에도 불어판에는 하이데거와의 토론을 담고 있는 부록이 함께 실려 있으나, 애석하게도 영어판과 이 영어판으로부터 번역된 국역판에는 그것이 빠져 있다.

3.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서평자는 수년 전부터 이 책을 ‘형이상학’ 강좌의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저자가 제공하고 있는 역사적으로 빈틈없는 구성과 집요하리만치 철저한 분석이 참으로 고맙기 때문이다. 그러나 번역 용어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책의 핵심인 제5장 부분은 따로 사역(私譯)을 해서 가르치고 있다.

번역자는 “이 책을 옮기면서”에서 자신이 옮긴 몇 가지 근본적인 형이상학적 개념들을 밝히고 있다(400쪽) *being*→‘존재’, *existence*→‘실존’, *ens*→‘있는 것’, *esse*→‘있음’, *actus essendi*→‘실존함의 현실’, *term(terminus)*→‘이름’ 등

이런 번역은 부분적으로는 원본에서 저자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결합에 기인하고 있다. 이 책 전체의 주제에 해당되는 불어의 *l'être*와 영어의 *being*은 서로 뚜렷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틴어의 *esse*와 *ens*를 둘 다 지시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조심해서 그것이 *ens*를 의미하는지 아

니면 esse를 의미하는지를 구분하여 번역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듯이 철학자들마다 그 용어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고 또 나중에는 그 용어에 해당된다고 사용하는 각국의 용어들이 이미 다른 오해 가능한 함축들을 담고 있는 채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렇기는 하더라도 이런 용어 사용은 철학계에서 엄밀하게 구분하여 사용하는 개념들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런 용어의 혼란스러운 사용이야말로 이 책이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철학 자체의 치명적인 일탈을 초래하는 주범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에 예시된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번역되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ens(being)→존재자(存在者) 혹은 유(有); esse(to be)→존재(存在) 혹은 '있음'; existentia(existence)→실존(實存), actus essendi (act of existence)→존재현실력(存在現實力) 혹은 존재현실 혹은 존재현실태; terminus(term)→항(項) 또는 관계항 등[정의제, 『형이상학』 참조].

4. 질송의 형이상학 안에서 '존재현실력'의 존재론과 '방법적 실재주의'의 인식론 및 '그리스도교 철학'에 대한 역사적 강의는 우리가 '가치적인 것은 모두 존재의 신비로부터 나온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 하나의 단일한 이론적 구상의 여러 측면들이다

『존재란 무엇인가』의 가장 현실감있는 메시지는 '신비의 의미와 합리성 사이의 균형'이다. 여기서 인간 이성이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하는 한계의 의식이다. 그러나 이 한계 내에서 (비록 형언할 수 없고 해독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확실히 현존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확실히 포착할 수 있는 것을 결코 평가절하하지 않는다. 경험의 실재는 철학으로 하여금 존재들의 논란의 여지 없는 '현존'과 (또한 존재자들 자체의 기본적인 합리적 암호이며, 그들의 특수한 본질의 '포착가능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존재의 '포착불가능성'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역동적 균형을 발견하도록 강요한다.

질송은 이 책을 통해서 형이상학적 이성 즉 고전적이고 객관적인 이성의 복권을 통해서 현대 합리성의 위기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